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남과 북의 평화로운 통일을 기원하는 남북 평화통일기도주일입니다.

오늘 오후집회는 동호회로 모입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15일부터 18일까지 양평에 있는 개척자들의 썬터 재건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학교 부장회의가 오늘 오후 12시 15분 교회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찬양대에서 신입대원을 모집합니다. 찬양대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은총의 숲 후원자 모임이 16일(금) 오후 2시 청파교회에서 있습니다.

하디 1903 성령한국 기도성회가 18일(주일) 오후 4시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있습니다.

조용히 부르지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두 곡을 골라 외워서 불러 보시기 바랍니다.

사 1:1, 10~20 / 시 50:1~8
히 11:1~3 / 눅 12:32~40

약4:7-13
---------

식 당 봉 사 : 이순정 오복순 이선화 박안수 이윤석 원인해 문복순 황현성
다음 주 식당봉사: 김금순 이춘재 이은정 서수진 박숙영 이지혜 박영희 김기성
오늘설거지봉사 : 이준하 김대근 이승진
다음 주 설거지 : 3남, 5여선교회
새 교 우 : 오형일 김명하 이지하 한정훈 김용규 송 명 이승엽
떡 대 접 : 데릭후사인 박근혜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청파교회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살아갈 힘이 되시며 새로운 날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잠들기가 어려울 정도의 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칠 수록 노동의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삶의 열매를 위해 기꺼이 땀을 흘리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남북의 평화통일을 기도합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 드려온 기도입니다. 이를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던 분들이 점점 많이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남과 북 사이에는 냉랭한 기운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속히 남과 북이 화해하게 하시고 통일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7월 28일 헌금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경희	김혜영	강세기	이소애	강순배	강인식	김정숙	고숙이	권혁순
박해경	김경수	김기석	김희우	김성우	박유경	김신실	이순용	김은정
김인걸	문영혜	김일량	이은옥	김재영	김재흥	최희영	김정민	이혜령
김정진	김중수	이순정	김지윤	김훈동	유경순	문홍일	민병배	문현미
박범희	박미영	박병구	박상규	박옥식	박인혁	박준희	이기분	방문성
박해경	배근수	김금순	배삼순	배재경	송임희	송형운	하미림	안세희
안정숙	오진훈	노순옥	왕수명	윤성종	김윤정	윤주원	최윤선	이계선
이소순	이동권	이민범	공재량	이봉배	이성범	권현숙	이수정	이신남
이에서	이용현	이우원	옥귀희	이자영	이진영	한양미	이현순	임고운
임승동	백혜숙	장재영	정복순	정한구	왕영순	한규숙	한기택	한상균
한성건	한완식	임정자	한인철	조윤숙	홍복선	홍선희	홍성식	이유리
홍춘숙	무명							

### 감사헌금

김민지 김상근 최선미 김재흥 최희영 박병구 박호규 강영님 박홍재  
 배근수 김금순 신민철 안정자 오미경 신민철 이경희 이광재 이병수  
 이순용 김신실 이자영 전근우 정영례 최미자 한인철 조윤숙 홍미숙  
 베퉴한복의정부점 무명4

### 생일헌금 오미경 무명1

녹색꿈헌금 김범진 김미현 윤성종 김윤정 윤영미 이진영 한양미  
 전 응 권정희 무명4

## <8월 4일 헌금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구명자	권채영	김경혜	김명순	이교영	김성한	조영순	김영순	김원중
김정애	김현주	김혜권	박재임	김혜영	문복순	박시내	배부레	백묘현
서정순	송임희	신진식	변혜정	안길상	이형숙	안종일	정현주	양재성
오자영	원용일	최현선	이범석	류정욱	이윤석	박안수	이재문	이재훈
장영숙	정두리	정연희	정우선	정현모	조경자	차혜심	노미향	하현철
최성애	황현성	이오복	무명2					

### 감사헌금

강순배 광권희 김명순 김정진 김주혜 문복순 박준희 이기분 박호규  
 강영님 신민철 신진식 변혜정 안정자 오규만 이범석 이병수 이은진  
 임성은 차혜심 홍성식 이유리 황현성 이오복 무명9

### 생일감사헌금 권미정 이정은

### 녹색꿈헌금

김성한 조영순 배미숙 안종일 정현주 임승동 백혜숙 정종삼 무명5

마음으로 읽는 글

## 매미 시편

마루에 누워 시집을 읽다가 행간을 구르는  
 매미 소리를 읽는다/  
 피를 토하는 어느 명창의 낮이 들어 있는지  
 박연폭포 한 소절 폭포수로 쏟아 내는데  
 목구멍에 걸린 울음 하나 제대로 읽지못해  
 매미시편 붙들고 땀을 흘린다/  
 짙고 굵은 생애의 절창을 위해 매미 중,  
 북미의 어떤 것은 17년을 파묻혀  
 몸 속 가락을 고른다는데/  
 내 목구멍은 자음과 모음의 엇박자로  
 울음소리를 흉내 낼 뿐  
 매미의 은신처가 되지 못 한다/  
 무엇을 더 비워내야 동안거 하안거 다 지낸  
 저, 소리의 깊이에 닿을 것인가/  
 매미 빈 몸통에 남아 있는  
 투명한 바람 소리, 매미 시편의 완결 편을  
 마음에 쓸어 담는다

- 강영은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정의, 용서하심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절망스러운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쉽게 좌절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못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힘을 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가야할 곳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신앙의 요체 / 김기석 목사 기도 : 윤성종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신진식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조병무 장로	조재훈 선생 김경연 집사

8	영접위원	조병무 김훈동 박석희 유경순 조항미 이현순
	헌금위원	한상익 정경례

믿음으로 읽는 글

## 2013년 평화통일 남북 공동기도주일 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2013년 광복절을 맞아 남북의 교회가 민족의 해방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혹독했던 일제의 억압과 만행을 극복하고 마침내 해방을 이뤄낸 선열들의 피와 눈물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광복절을 68번이나 맞았지만 아직 온전한 해방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대결과 갈등 속에 살지 않기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서로를 형제자매의 마음으로 기도의 문을 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민족공동체가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진정한 해방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 소홀했던 지난 과거를 용서해 주소서. 분단의 세월이 너무나 많이 흘러 이제는 통일이라는 단어에도 무심해졌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하던 입술에서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 됨을 염원하던 우리의 가슴이 너무 냉담해졌습니다. 분단이 익숙한 얼굴이 되었고, 비난과 갈등이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비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소서. 진심으로 참회하는 가운데 뜨거운 사랑과 성실한 의지로 평화통일을 사모하게 하소서. 대화의 문을 닫았던 지난날, 서로 원망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이산가족의 아픔이 자손들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소서. 금강산과 개성공단 그리고 서해바다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랫동안 끊어진 철도가 다시 연결되어 사람과 물자, 평화로운 소식들이 오가기를 희망합니다. 비무장지대가 만남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한반도가 화해와 평화의 상징이 되게 하소서.

주님! 다시 통일을 꿈꾸게 하소서. 마음의 장벽을 헐고 피차 존중하게 하소서. 더 이상 군사동맹을 자랑하지 않고, 군사적 적대를 지속하지 않게 하소서. 휴전 상태로 지내온 지 60주년인 올해를 평화의 원년으로 고쳐주소서.

평화의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며, 국제사회 속에서 남북의 신뢰와 우애를 자랑하게 하소서. 공허한 말과 구호가 아니라 가슴에서부터 솟구치는 긍휼함으로 서로 따듯하게 품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한 핏줄 형제자매임을 자부하면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남북의 교회가 먼저 애찬을 나누며 서로 받을 씻겨주는 은총의 자리를 준비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광복의 감격을 나누는 시간에, 주님의 얼굴을 이 민족을 향해 비추어 주소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교회가 평화의 사도로 부름 받았음을 깊이 아로새기게 하옵소서. 수 년 내에,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꼭 이루어 주소서.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013년 8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조선그리스도교련맹